

## 화폭에 담은 자연과 인간의 相生

이호신 개인전 '수묵화로 피어난 가람의 진경'

인사동 학교재-아트스페이스 서울, 25일~5월15일

구도적 자세 세심한 붓질  
산사로의 실감나는 초대



◇ '구룡사 일주문' (48×32cm, 1996). 원동은이란 편역을 단 특이한 양식의 일주문이다.



하림사 울뿔나무 기묘분 호신

◇ '회암사 울뿔나무' (24×41cm, 1999). 회암사 개울 건너 지장암 돌에 심어진 천연기념물 제39호 울뿔나무의 민개한 꽃을 보고 즉석에서 그린 작품이다.

사선이 없던 시절, 경계와 단원 같은 대화가들이 그려낸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안긴 산사의 진경(眞景)은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화폭의 그림을 남기기 위해 험난한 산길과 멀리 물길도 마다 않고, 명산 명찰을 찾아다니는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는 수백년 전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다.

경계 단원을 이어 진경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화가 이호신씨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한 우리 산천과 사찰을 화폭에 담았다. 우리 산천과 그 속에서 우리 삶의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오고 있는 사찰을 수묵화로 그려내어 오늘에 되살린 '신수와 가람의 진경'전이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사동 학교재와 아트스페이스 서울에서 열린다. 화려하지 않으면서 포근하며, 친밀감이 느껴지는 세심한 필치로 그려 낸 우리 산천의 사찰 41곳이 선을 보인다.

육안으로는 물론 항공사진으로도 불가능할 부석사의 전경은 그가 그림에 기울인 노력과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하게 한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옛 건축의 보고요, 가람의 백미로서 찬탄과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석사를, 부석사가 위치한 봉황산의 전면과 후면 측면의 시각을 종합하여 그려냈다. 부석사 일주문에서 극보 제17호로 지정된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석축들이 모두 9단으로 크게 3단씩 나누어져 정토사상의 3배(三寶九層) 왕생의 교리를 상징하는 독특한 사찰양식도 고스란히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우리의 사찰들이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자생풍수에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화가가 관망객(觀望客)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사찰의 주인인 부처님이 바라 보는 곳을 조망하며 그림을 구상했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고도 경주의 함월산 기슭에 자리한 기림사의 경우 개울 건너 산 위에서 내려다 본 산세를 통해 거북이 두 마리가 물길을 향해 일드려 있는 형국이 드러나고, 산 위의 부처바위가 아래 연못



◇ '운문사 직압전과 대추나무' (30×30cm, 2000)

에 비쳐서 드러나는 불영(佛影)을 통해 경복을 진 천축산 불영사의 이름이 유래한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눈여겨보면 화가의 그림에 대한 다양한 시도도 발견할 수 있다. '지악산 구룡사' (35×37cm, 1996)는 직접 생(生) 쪽을 삶아 그 불에 한지를 염색해 푸른빛이 도는 바탕 위에 싱그러운 여름의 사찰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겨울 밤 달빛 아래의 정경과 아련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노란 치자 물로 염색한 한지 위에 그린 '월정사의 밤' (61×33cm, 1999)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과 석조보살좌상의 조화로움을 한결 빛나게 하는 작품이다.

화가 이호신씨는 그 흔한 자가용 한 대 없이 버스와 기차에만 의지해 41곳 사찰의 갖가지 풍경을 화폭에 표현했다. 때로 높은 산에 오르는 수고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낮선 이 만나기를



◇ '달마산 미황사' (138×57cm,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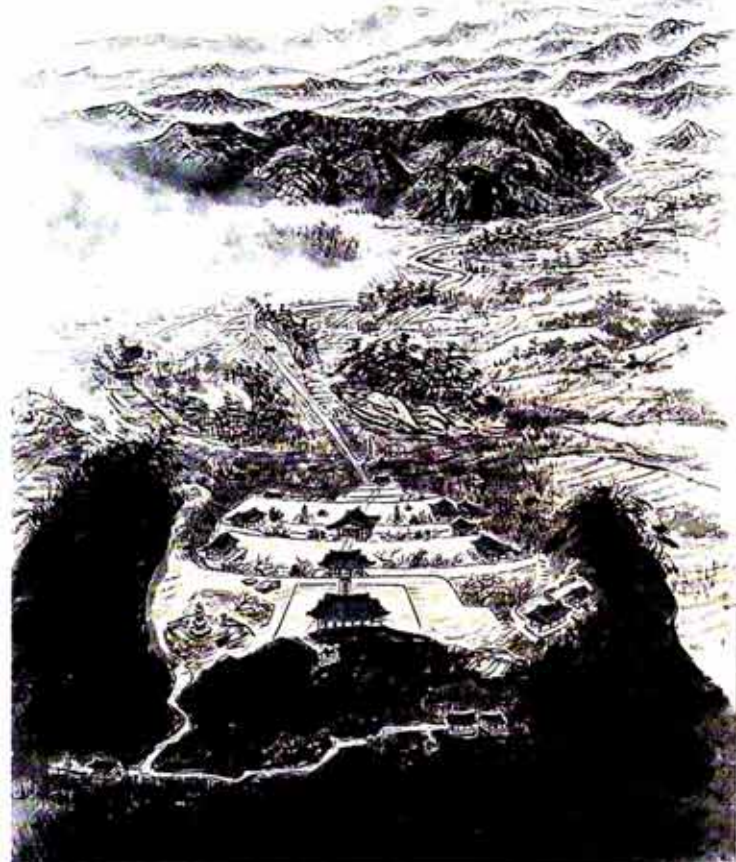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 땅, 우리 산, 우리 절을 체험한 까닭에 사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만의 느낌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그림 속에 묻어나 있다. 이같은 작업은, 산수와 조화를 이룬 곳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이아말로 대자연과 고건축의 아름다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항상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산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필그림은 그가 91년부터 그리기 시작한 것들이고, 작품은 그 그림을 바탕으로 94년부터 하나씩 완성했다. 중요한 가람 배치와 자연, 사찰의 의미, 특색, 배치 등을 기본으로 살렸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암자, 뒷산의 마애불, 스님과 신도의 움직임도 화폭에 끌어들이 보여준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 1994년에 스케치한 가야산 해인사의 전경.



◇ '봉황산 부석사' (155×86cm, 1994). 부석사아말로 자연과 건축물이 이룬 조화의 극치를 보여준다.

### "10년간 전국사찰 그림순례"

#### 7번째 개인전 이호신씨

"사찰 그림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안내 지도로 되어버릴 수 있어, 전체를 보여주되 진경으로서 사찰의 모든 것을 화폭에 옮기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빠르게 사는 것이 최상의 미덕인양 인식되는 요즘, 험하지 아날로그를 고집하며 우리 수묵화의 전통을 오늘에 이어오고 있는 화가 이호신씨.

'산수와 가람의 진경'전은 그의 7번째 개인전이다.

"결계 정선이나 단원 김홍도 등과 같은 대가들도 사찰 그림을 많이 그렸으나 그 전통이 오늘날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 문화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문화의 발전이 없고, 우리나라 전통 회단 또한 설자리 잃어 가고 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나라와 우리의 자연과 산천,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우리의 전통을 그림으로 남겨서 후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붓을 들었다."

이씨는 지난 10년간 바쁜 일정을 쫓아 떠나는 대로 전국의 절을 찾아 평균 3~4일의



#### 그림과 글 모아 '풍경소리에 귀를 씻고' 책으로 펴내

일정으로 사찰에 머물면서, 직접 산을 오르며 사찰 주변의 산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스케치하며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이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그림들과 함께 이씨는 글을 한데 묶은 화첩 <풍경소리에 귀를 씻고> (해들누리 배움 펴내기도 했다.

#### 정세채와 떠나는

### 선·식·기·행

#### 마가목차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평안도 평산의 우두암에서는 솔바람 사이로 굴뚝의 연기가 쉬지 않고 흩어지고 있었다. 아궁이 밖으로 탁! 탁! 튀어 오르는 불뚝만이 고요한 산사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붉은 불꽃이 일렁이는 아궁이 앞에서 한암(漢巖) 스님이 골똘 앉고 앉아 있었는지도 무척 오래 되어 어느덧 흰이 바뀌고 있었다.

우두암 주변에는 큰 산짐승의 발자국만 간간히 보일 뿐 사람의 발자취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한암 스님이 지난 가을 겨울스랑으로 보리쌀 서너 되와 좁쌀 두 되를 장만하여 산사에 올라온 것이 고작이었으니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장작들은 아닌 듯 싶었다. 아직도 날이 밝아오려면 꽤 많은 시간이 남은 그림날 밤은 어둠이 짙었다. 그 말만 나무는 모두 재로 변했고

#### 강장·진해·거담 등에 효과

스님은 힘겹게 굳은 다리를 풀며 애써 우두암 뒷밭 옆에 지난 겨울바람에 부러진 마가목 가지를 찾아 나섰다. 숨죽이고 있던 검은 재가 어느덧 진흙 아궁이 앞으로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청아한 마가목이 타오르는 냄새는 향불보다 길고 그윽했다. 연기에 취한 한암 스님이 큰기침을 하는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화열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우주를 관통하는 빛을 깨우치는 순간이었다. 방으로 뛰어온 스님은 단숨에 붓을 들고 '부엌에서 불 불이다 별안간 눈 밝으니/ 이를 뜻아 옛 길이 인연 따라 분명하네/ 누가

나에게 서래의(西來意)를 묻는다면/ 바위 밑 우물소리 찾는 일 없다 하리." 한암 스님은 한순간 마가목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크게 깨달으신 것이다. 그 후 오대산에 오신 한암 스님은 많은 차 중에서도 마가목차만을 손수 준비하시어 학인들에게 나누는 일을 잊지 않았다. 지금도 긴 겨울이 오면 오대산 남대지장암의 비구니 스님들은 마가목차를 마시며 차가운 겨울 바람을 선풍(仙風)으로 녹여내고 있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있다> 저자**

####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마가목 10g, 뿌리, 열매 각 30g, 물 200g  
① 마가목 잎, 줄기, 열매를 깨끗이 씻어서 찬물에 담가 불린다. ② 찹쌀 냄비에 마가목을 넣고 물이 반 정도 분량으로 졸 때까지 끓인 후 배 보자기에 거른다. ③ 잎, 줄기, 열매를 같은 방법으로 끓여서 다기에 담아낸다.  
효능 강장, 지갈, 이노, 진해, 거담

